

살아있는 언약궤 (사무엘상 6:10-21)

하나님이 인간에게 답을 주셨다. 이 답을 가진 사람은 저주에서 나온다. 응답을 지속적으로 받는다. 이 답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피흘리심이다. 이 죽으심과 피흘리심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다. 이 답이 뱀의 머리를 껌으로 우리를 저주에서 건진다. 그래서 이 것을 언약으로 잡으면 인생이 저주에서 나온다. 참 놀랍고 간단하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살지 않는다. 자기가 살기 싫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다. 사단에게 속아서 그런 것이다. 사단은 죽을 힘을 다해서 인간이 이렇게 살지 못하게 만든다. 누구든 답으로 들어가면 저주에서 나오기 때문에 기를 쓰고 막는 것이다. 사단이. 그래서 인간 목표가 필요 없고 이것만 회복하면 끝이다. 그리고 이것을 계속 누려서 우리가 늘 메시지 듣는 393까지 들어가서 정복을 하는 것이다. 문제에 놀리라고 문제를 준 것이 아니다. 내가 준 답으로 이 문제를 깨고 증인이 되라는 것이다. 답이 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답을 주셨다. 그래서 그 답이 내가 어느 정도 내게 답이 되었는가 내 인생 전체를 결정한다. 오늘도 우리는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시간을 무시하며 산다. 너무나 중요하고 믿는 사람에게는 지금보다도 더 의미있는 시간이 세상에 없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 드릴 때 굉장한 일이 일어난다고 예를 들어서 많이 설명했다. 하나님이 인간이 저주에서 나온 답을 주셨다. 이 답을 언약으로 잡고 예배를 드리면 응답하겠다고 약속하셨다. 놀랍다. 어렵다 힘들다 할 필요 없다. 이것 안해서 그렇다. 하나님은 원인도 알고 과정도 알고 결과도 아신다. 그 정도가 아니다. 하나님은 답도 가지고 계시다. 이것을 기록한 것이 성경이다. 복음이 없기 때문에 성경을 읽어도 이해를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설명하셨다. 때로는 역사적 사건을 가져와서 설명하셨다. 오늘 이야기도 마찬가지이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했는데 언약궤를 빼앗겼다. 이스라엘 역사상 한번도 없었던 역사적 사실로 메시지 하시는 것이다. 일어났던 사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이기 때문에 진짜로 잡으라는 것이다. 어떤 때는 한 사람의 인생을 쭉 기록하였다. 그 사람의 인생중에 일어난 일을 써서 우리에게 그러므로 이거야 라고 말씀하신다. 우리는 내가 먼저 이 답으로 내 인생을 회복해야 한다. 지속적인 응답을 받아 내 인생이 풍성해지는 것이다. 영적으로 풍성하고 육신적으로도 풍성하고 건강, 돈으로도 풍성해지는 것이다. 모든 문제 다 깨버리고 정복해야 한다. 그리고 완전 증인되는 것이다. 이것이면 반드시 된다고 끝까지 말할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축복 해주기를 바란다. 어떻게 하면 되는가? 그 시작이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고백하기 시작하면 된다. 그래서 그 기도의 세계가 393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다. 가만히 있어서 전 세계를 두고 기도하는 것이다. 시대적인 증거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다. 그것이 393이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이다. 그리고 이 답을 세상에 하나님은 전달하기를 원하신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답이 없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흔히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미국 교회가 죽어가고 있다고 말한다. 살릴수 있다. 오늘 이 역사적인 이야기가 거기에 대한 답이다. 언약을 회복하고 복음을 회복해라. 그러면 내가 역사한다는 메시지이다.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이다. 하나님은 이 일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증인되어서 사람 살

리라고. 미국 교회 살리라고. 미국 교회가 필요한 것이 정확한 복음이다. 이것을 두고 우리가 다시 한번 성취될 말씀을 받는 것이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말씀으로 하신다. 이것 또한 너무나 참 감사하고 간단한 길이다. 광야에서는 반드시 말씀을 따라가야 했다. 그냥 다니면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것이다. 그런데 싫던지 좋던지 말씀을 따라가는데 40년이나 살았다. 아무리 위험한 곳이라도 말씀 따라가면 산다는 뜻이다. 말씀을 따라가면 길이 있다. 아닌 것 같은데 여기에 길이 있다. 들어와서 언약되어야 한다. 세상에 무슨 일이 있어도 말씀 따라간 사람은 승리하였다. 노아를 볼 때 사람들이 우습게 생각했지만 혼자 하나님 말씀 따라갔다. 모세가 가나안 땅 간다고 했을 때 반대자가 많았다. 그래도 모세는 상관없었다. 하나님이 가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것이다. 이 시대의 말씀이 뭐가? 부활 메시지 4개, 요약해서 237, Healing, Summit. 이것 향해 사는 것이다.

1. 살아있는 언약궤

언약궤는 빼앗겨도 살아 있다는 것이다. 언약은 여전히 살아 있다. 환경이 변한다고 언약이 변하는 일은 없다는 것이다. 우리가 본 대로 4장에서 보면 블레셋 이스라엘 전쟁에서 언약궤 빼앗겼다. 그리고 대 제사장 일가족 다 죽었다. 이스라엘 역사상 한번도 일어나지 않은 일이 일어났다. 그런데 아무런 힘없이 빼앗긴 언약궤가 적군의 원수의 땅에서 대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었다. 가는곳마다 다 죽어버렸다. 5장 3-4절을 보면 상세한 이야기가 나온다. 그들이 언약궤를 빼앗았으니 자기의 신당에 넣어두었다. 영광을 자기 신들에게 돌리려고 그랬을 것이다.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 자기들의 신 다곤이 언약궤 앞에 쓰러져 있었다. 이상하게 생각했을 것이다. 어찌다 이래되었나 했을 것이다. 그래서 다시 세워났다. 그런데 그 다음날 가보니 목이 잘라져버렸다. 다곤신의 목이 끊어져 버린 것이다. 손목 두 개 잘라져 버렸다. 그러면 몸뚱이만 남은 것이다. 그 몸뚱이가 언약궤 앞에 엎드려져 있었다. 굉장한 메시지이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냈을 것이다.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이다. 만일 거짓말을 소설로 썼으면 블레셋이 가만히 있었겠는가? 진짜 있었던 일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5장 6절에 보면 그냥 신들 뿐 아니라 그 동네가 아스돗이라는 곳인데, 그 지역 사람들의 몸에 종기가 다 나는 것이었다. 온 동네의 사람들 몸에 종기가 나서 완전히 재앙이다. 그래서 이들이 눈치를 챈 것이다. 이스라엘 신이 우리를 쳤다는 것을. 그래서 언약궤를 다른 곳인 가드로 옮겼다. 그곳은 골리앗의 고향이었다. 자기들에게는 대단한 곳이었다. 혹시 이스라엘 신의 힘이 빠질까 하여 보낸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거기도 마찬가지였다. 온 동네가 난리가 났다. 사람들마다 집집마다 종기가 난 것이다. 그래서 에그론이라는 곳으로 옮기려고 하였다. 그 소문들고 에그론 사람들이 난리가 났다. 절대 안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 대표자들이 모여서 의논을 하였다. 이것은 도저히 감당이 안된다. 돌려보내자. 이러다 우리 전부 다 죽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돌려 보내기로 한 것을 오늘 본문으로 선택한 것이다. 그런데 보내기 전에 자기들 나름대로 죄용서해달라고 하면서 제사도 드리고 해서 보낸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언약궤를 옮겨야 할지 몰라서 수레를 새로 만들었다. 그래서 세 수레를 만들어서 송아지가 있는 암소가 수레를 끌게 하였다. 왜냐면 6:9에 보면 송아지를 둔 암소는 송아지가 그리울테니, 송아지를 집에 놔두고 암소가 끌고 가는 것이다. 그 암소가 수레를 끌고 바로 이스라엘로

넘어가면 이 재앙은 이스라엘의 신이 한 것이고 그것이 아니면 우연이라고 판단하려고 한 것이다. 그런데 그 암소가 울면서도 집으로 가지 않고 이스라엘로 갔다. 그 암소가 두 마리였는데, 두 마리가 다 그랬던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암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했다는 것이다. 이것이 오늘 이야기의 줄거리이다.

메시지는 언약궤는 여전히 살아 있다는 것이다. 우리의 언약이 문제지, 언약궤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너희들이 내 제사를 무시하고 그 언약의 피제사를 무시하기 때문에 내가 언약궤를 빼앗기게 했지 언약궤가 죽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래서 언약궤 가는 곳마다 난리가 난 것이다. 사단 모든 것 다 저주 다 임했다. 다곤 신 목 잘라졌다. 메시지가 뭐가? 내가 누군지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스라엘의 신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 이후의 사람들은 다곤신을 여전히 믿었다. 목잘라진거 버리고 새로 만들었을 것이다. 언약 없이는 안된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조금이라도 생겼다면 진짜 감사한 것이다. 손목 끊어지고 몸뚱이만 남아서 옆드려져 있었다. 언약궤 그냥 따라갔는데 요단강 갈라졌다. 그냥 메고 돌았는데 여리고성 저절로 무너졌다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그 때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것이다. 문제는 언약이다. 언약이 회복되어 있으면 모든 것이 능력으로 역사한다. 모든 것들이 도움이 되어지고 모든 시스템이 다 살아난다는 것이다. 우리가 이런 일을 만들어낼려면 죽어도 안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간단한 답을 주셨다. 그냥 언약을 회복하고 있으라는 것이다. 그러면 너의 주위의 시스템이 살아나서 역사할 것이다. 기적으로 바뀐다. 이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주었다. 착각하지 말라는 것이다. 내 백성이 내게 지은 죄는 너와 관계없다. 내 백성과 나의 사이의 일이지. 그래서 이스라엘이 잘못해서 빼앗겼는데도 가는 곳마다 다 죽어버렸다. 너하고 나는 관계 없다는 것이다. 너희가 잘해서 빼앗은게 아니라 나의 계획이었다는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고 신의 목을 쳐서 내 백성을 깨닫게 하려고 일부러 빼앗기게 한 것이라는 것이다. 절대로 착각하지 말라는 것이다.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사단이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어찌되었건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움직이는 것이지 사단은 스스로 뭘 하는 것이 없다.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래도 당신의 백성편이고 저래도 당신의 백성 편이다. 이스라엘은 빼앗겼지만 그 언약궤가 블레셋에서 한 것을 보고 많이 깨달았을 것이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마지막 메시지, 내가 다 할테니 너는 내 언약의 피제사만 회복하라. 언약을 회복한 그 삶이 깊어지고 넓어져서 393에 이를만큼 나를 깊이 누려라. 그러면 내가 전부 다 한다. 언약궤 하나가 가서 빼앗긴 언약궤로 전쟁 끝내 버렸다. 이스라엘은 한 것이 하나도 없다. 괜히 나와서 3천명 4만명 죽은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어느 블레셋 군대가 다시 전쟁하자고 하겠는가? 이것이 하나님이고 언약이라는 것이다. 언약을 회복하면 너의 인생에도 이렇게 된다는 것이다. 뱀의 머리 다 박살나는 것이다. 내가 전부 다 할테니 너는 언약으로만 살아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이다.

2. 말씀

언약을 가졌으면 그 다음은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다. 이것이 응답을 사실적으로 받는 방법이다. 정복하고 완전 증인되는 것이다. 그것이 말씀 따라 가는 것이다. 광야에서 할 일은 딱 한 개 있다. 농사 지을 필요 없다. 지을수도 없고. 땅 파서 우물, 그것도 불가능

이다. 그래서 있는 것은 공기 하나 뿐이다. 그 외에는 하나도 없다. 그래서 할 것 하나 뿐이다. 말씀 따라가는 것. 그래서 유월절에 나오면서 언약 회복되었고 하나님의 소원 가나안을 향해 가고 있었다. 그런데 어떻게, 또 다른 인도가 필요한 것이다. 그것이 말씀이다. 그 말씀 대로 따라가면 거기에 물이 있는 것이다. 이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으로 가기 때문에 하늘에서 먹을것이 내려오는 것이다. 너는 이렇게 살으라고 성경책에 써 놓은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광야 생활이다. 언약을 가지고 언약으로 사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말씀을 주시게 되어 있다. 조금만 말씀 중심으로 살고 예배를 기도하면서 예배 드리면 말씀을 주시게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근본을 바로 해야 한다. 언약을 잡고 살고 언약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소원에다가 내 인생을 딱 맞추는 것이다. 그리고 이 놀라운 일을 교회와 함께 가는 것이다. 교회 무시하는 사람은 응답 못 받는다.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교회를 위해 피 흘리셨다. 그래서 교회와 함께 가야 한다. 너무나 성도로서 중요한 일이다. 지금 우리에게 세계복음화 237, 치유, 서밋, 언약이 와 있다. 시대적인 축복이다. 부활 메시지 4개에서 오는 것이다.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에 소원을 담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제자를 세우라. 치유운동을 해라, 렘넌트, 후대를 세워라. 땅끝까지 가라. 이것을 모세에게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하는 것과 똑 같다. 잘 받아들이고 진짜 언약이 되어야 하고 이 기도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 우리는 이그림을 두고 미국, 남미, 렘넌트, 다민족을 언약으로 잡고 있다. 이러한 중에 렘넌트 운동이 중요하기 때문에 금토일 시대를 언약으로 잡고 복음 영역을 넓히기 위해 문화라는 것으로 새로 시작하려는 것이다. 이 중대한 일을 두고 항상 중요한 것이 제자 훈련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제자들 모아서 집중훈련, 이 부분도 기도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단어들 우리에겐 개인적으로, 개인 언약으로 들어와서 언약이 되기 바란다. 이 때 하나님이 나와 통하게 되는 것이다.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가만히 있기 때문에 영혼이 통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 하고 싶은 이 일이 내게 들어와서 언약이 되면 정말로 통하게 되는 것이다. 그 사람에게 역사하는 게 당연히 달라질 것이다. 그냥 왔다갔다 하는 것이 아니다. 눈을 떠야 한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이며 하나님이 무엇을 하기 원하는지. 교회와서 그냥 예배 한번 드리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이런 중요한 단어들 언약이 되어 있으면 어떻게 되겠는가? 모든게 달라진다. 응답과 인생이 달라지는 것이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란다. 눈 열려야 하고 발견되어야 하고 들어오면 언약이 되는 것이다.

이를 두고 오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단어가 있다. 언약궤가 문제가 아니라 언약이 문제라는 것이다. 우리가 잡은 언약은 다곤의 머리를 깨뜨린다.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은 다곤의 머리를 깨 버린다. 블레셋 사람들이 백번 세워도 백번 다시 무너뜨린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언약이다. 이것으로 살라는 것이다. 이것만 회복하면 내가 다 한다는 것이다. 힘없어 보이는 빼앗긴 언약궤이다. 그런데 도저히 어쩔수 없어 할수 없이 돌려보낸 것이다. 이것은 내 백성과의 문제라는 것이다. 무슨 문제? 나와 내 백성 사이의 언약의 문제라는 것이다. 이것이 메시지이다. 회복하고 그냥 회복만 하는 것이 아니라 깊어져서 393까지 간다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 안의 언약궤의 역사도 깊어지고 넓어질 것이다.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란다.